

**(주)솔고바이오, '과열방지 온열매트' 국내최초 특허취득**

첨단의료공학기업(주) 솔고 바이오 메디칼(대표 김서곤, www.solco.co.kr)이 국내 최초로 '과열방지 온열매트'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0월 25일에 발표했다.(출원번호 2006-0051017) 본 제품은 인가된 전력에 의해서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기능을 가진 온도 자동 조절 케이블(Self Regulation Cable)을 세계 최초로 매트에 도입함으로써 고온 자동 제어와 전자파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또한 '과열방지 온열매트'는 복수의 발열수단이 병렬 구조로 연결됨으로써 발열수단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켜서 전자파 발생이 억제되고 발열수단에 포함된 반도체성 폴리머의 탄소성분에 의해서 인체에 대한 치료 효과를 증가시키는 원적외선을 다량 복사하여 사용자에 대한 치료효과를 배가 시키는 우수한 장점이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매트들은 국부 과열에 의한 고장, 화재의 위험과 전자파에 노출되어 있으나 당사의 특허기술은 과열방지 기능은 물론 탄소(카본)발열로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고 인체 유익한 혈액순환과 통증완화 개선에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솔고 바이오 메디칼 김서곤 대표는 "우리나라 온열매트 사업의 가장 큰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과열에 의한 안전성의 문제이며 이는 대기업 가전사들이 7천억 규모의 매트 시장을 외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당사도 지난 15년간 매트 사업을 지속하면서 상당한 A/S 비용을 지불하였고 지난 2년간 적자의 주요원인이 되기도 했으나 이 과열방지 온열매트를 개발함으로써 A/S 비용 절감을 통한 원가 절약에 큰 효과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솔고 바이오 메디칼은 '과열방지 온열매트'의 기술이 확보된 만큼 다양한 신제품 개발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매출 신장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청풍, 공기청정기 해외진출 본격화**

공기청정기 전문업체 청풍(대표 온성준 www.chungpung.com)이 중국과 미국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2월 9일 청풍에 따르면 지난해 LED 생산설비 업체 ST&I의 자회사로 새롭게 경영체제를 구축한 것을 계기로 올 들어 해외사업에 중점을 두고 중국과 미국 시장을 글로벌 마케팅의 발판으로 삼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중국의 대형 가전 제조사 에어 메이트와 전략적 제휴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어 조만간 본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는 청풍은 올 상반기 중에 텐진 지사를 개설할 예정이다. 청풍 관계자는 "텐진지사 설립을 기점으로 에어메이트 본사가 있는 선전을 비롯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에 차례로 지사를 증설하면서 중국인 문화에 맞춘 현지 마케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청풍의 앞선 기술을 중국측에 전수해 국내보다 싼 노동력과 현지 3000여개 매장을 가진 에어메이트의 영업망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른바 생산기지화 전략을 철저히 구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풍은 높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디자인도 중국시장 개척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같은 기술, 디자인, 마케팅 등을 기반으로 청풍은 주력제품인 공기청정기를 비롯해 칫솔 살균기 등 웰빙형 소형 생활가전을 본격 출시하는 등 중국시장에 승부수를 던진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국시장 진출 계획과 관련, 청풍은 지난달 8~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 '2008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 처음으로 참가, 공기청정기 분야의 최첨단 기술과 컨버전스 웰빙가전 제품을 선보였다. 지난 2~3년 동안 미국시장 진입을 위한 현지 사전 수요조사를 끝내고 올해 CES 첫 참가를 계기로 공식적인 미국 및 미주시장 공략을 선언한 것이다. 청풍은 CES에서 신기술 광전자촉매시스템(PEC-ion System)이 적용된 공기청정기를

비롯하여 탁월한 탈취력을 보유한 신개발 필터(나노메탈카본 필터) 등 공기청정 분야의 신기술을 선보여 해외업체들로부터 주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풍 미주지역 마케팅 실무자는 “CES에서 신기술은 물론 디자인 등에서 반응이 좋았다”고 전하며 “미국을 교두보 삼아 북미와 남미 등에 공기청정기 및 웰빙 가전을 판매해 2004년에 45개국까지 수출했던 전성기 때의 해외실적을 웃도는 사업역량을 과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국, 미국 시장의 수출 확대를 통해 청풍은 2000년대 초반 전체 매출의 20% 가량을 차지했던 수출비중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면서 2004년 이후 정체된 내수 부문을 만회해 나간다는 목표이다.

**황토벽재로 새집증후군 퇴치**

자연 건축자재 제조업체 흙예성 (www.soilart.co.kr 대표 장영근)은 지난해 GS건설이 분양한 ‘자이’ 아파트 2000여 가구에 황토 내장재를 공급했다. 추가로 신규 분양 아파트에 적용하는 계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00여 개 인테리어 업체에서 주문도 잇따르고 있다. 고급 벽지보다 가격이 10~20% 비싸지만 화학재료로 인한 새집증후군, 아토피에 대한 염려 속에 황토 벽재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2004년 개발된 흙예성 황토 벽재는 국내외에서 흙으로 만든 유일한 건축 내장재다. 일부 인테리어용으로 황토 벽재가 사용되기는 하지만 대규모로 생산·공급한 것은 이 회사가 처음이다. 장영근 흙예성 대표는 “국내 아파트 실내는 독성수준이 세계보건기구가 제한하는 기준치보다 5배에서 많게는 10배를 넘을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라며 “황토 벽재는 기존 내장용 벽재와는 달리 독성을 내뿜는 화학물질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 환경 친화적인 차세대 벽재로 시장성이 무척 밝다”고 밝혔다. 흙예성 황토 벽재는 청정지역인 경남 산청에서 채굴한 산청토를 사용해 만든다. 독성을 흡착하는 기능과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나와 신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촉진, 불면증·스트레스 해소 등에도 효과가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특히 입주아파트 등 신규 건축물 내부 공간에서 발생하는 발암·신경독성 물질을 흡수해 새집증후군 방지 효과도 볼 수 있다. 습기 조절 성능이 뛰어나 장마철에는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보온 기능을 갖춰 겨울철 난방비 절감도 가능하다. 이 흙내장재는 무공해 천연 접착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도배지를 쓰지 않고 벽면에 부착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시공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파도, 죽엽 등 40여 가지 무늬를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인테리어 효과를 볼 수 있다. 장 대표는 “도배지는 2~3년 만에 바뀌야 하지만 흙내장재는 5~6년이 지나도 별 이상이 없고 때가 전혀 타지 않기 때문에 경제성까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아롱엘텍, 컬러 테라피 미용 마사지기 출시**

아롱엘텍(대표 김진국 www.ahrong.com) 이 독일 하노버에서 개최되는 ‘세빗(CeBIT) 2008’에서 컬러 테라피 미용 마사지기 ‘렉스카라 오팔(Rex-Kara Opal)’ 등 자사의 미용마사지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롱엘텍이 최근 출시한 ‘렉스카라 오팔’은 초음파기능과 원적외선을 갖춘 마사지기로 피부 활성화와 피하지방 및 피지제거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또한 손안에 쏙 들어오는 디자인으로 내부 충전지 방식을 사용, 유선 및 무선으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컬러 테라피 기능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김진국 대표에 따르면 “눈이 피로 할 때 초록색을 보면 피로가 풀리듯이 피부자체도 색깔에 변화를 일으킨다”면서 “RGB 컬러를 적정비율로 섞어주는 LED를 사용, 이러한 컬러들의 파장 에너지가 피부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디보스, 산소음이온 모듈 내달 본격 양산**

중견 LCD TV 전문업체인 디보스(대표 한대진)가 2월달 초부터 대구공장에서 산소 음이온 모듈을 양산한다고 1월 29일 밝혔다. 이 업체는 중국 대련백리제약회사와 음이온 제품의 모듈 공급에 대한 계약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 대련백리제약회사로부터 초도 물량 10만대 분에 대한 제품금액을 송금 받았다. 디보스는 우선 올해 초에는 매월 35만대의 음이온 모듈을 공급한 뒤 내년 부터는 500만대, 오는 2010년에는 1000만대(650억 원)를 공급할 방침이다. 대련백리제약회사는 공급받은 모듈을 조립해 중국 현지 병원과 호텔에 판매해 설치할 계획이다. 한대진 사장은 “이번 모듈 공급으로 1200억원의 수출효과와 5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한미터보벤트, 신발 속 세균. 안녕!**

한미터보벤트(대표 이기운 www.dryhut.com)가 원적외선과 은나노를 이용한 신발 살균건조기 '드라이헛(DryHut)을 출시했다. 살균, 건조, 탈취라는 3단계 과정을 통해 신발 내부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 청결한 신발 유지를 도와주는 드라이헛은 은나노와 무기항균제의 결합으로 생성된 무기나노바인더라는 강력한 산화제가 살균을 책임지기 때문이다. 또한 원적외선 방식으로 건조해 신발 모양 변형이 전혀 없다. cc당 약 2,000개 음이온을 발생시키는 드라이스틱은 신발 내부의 각종 냄새를 제거한다. 또한 100% 국내산 참나무로 만든 고급 백탄을 사용해 제습, 탈취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제품의 제원으로써 규격은 318(W)×375(D)×370(H), 전압은 220V, 전력은 20W, 무게 8kg이다.

**노비타, 진공압력밥솥 출시**

**비데로 유명한 노비타**에서 새롭게 런칭한 가전 브랜드 'feeldigm(필다임)'이 첫 선을 보인다. “feel paradigm”의 합성어인 feeldigm(필다임)은 소비자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감성디자인과 한 발 앞선 기술을 통한 생활의 가치 제안을 표방하는 프리미엄 감성가전으로써 진공 IH압력밥솥이 출시된다. feeldigm(필다임) 진공IH압력밥솥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진공보온'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진공보온은 진공팩이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는 것처럼 보온시 내솥을 진공 밀폐하여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진공보온을 통해 밥알의 마름이나 변색, 냄새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기존 12시간 보온을 넘어서 32시간 동안 갓 지은 밥맛을 지킨다. 차별화된 기술과 더불어 소비자의 시선을 끌 유니버설한 디자인도 눈에 띈다. 압력 추를 감추고 캡으로 상부를 덮어 슬림한 디자인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전 기능의 터치 센서 버튼화, 컬러 LCD디스플레이, 진공보온 피드백 램프(Feed-Back Lamp)등으로 디자인적 요소를 한 층 강화하여 감각적인 프리미엄 생활가전을 표방하였다.

또한 열전도율이 황동, 금보다 뛰어난 '은'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솥 코팅 처리하여 보다 빠르고 고르게 열전달이 가능하게 하여 찰진 밥맛을 구현하였다. 이밖에 15가지 안전장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압력조절(0.4기압-0.7기압), 원적외선 방출효과와 맥반석코팅으로 건강까지 고려하였다.

**에너지코리아, 원적외선 나오는 난방 패널**

에너지코리아(대표 이광성 www.sunjoy.co.kr)는 천장형 원적외선 복사 난방 패널 '선조이(SUNJOY)'를 선보였다. 이 제품은 다른 전기 난방기에 비해 33~52%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데다 원적외선 방사율 94.8%, 음이온에 의한

탈취율 73%, 항균율 99.8%로 쾌적한 실내공간을 제공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또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 없고 준 불연재(난연2급)로 화재 위험이 없다. 이 제품은 유럽 100대 우수제품 선정과 산자부 NEP인증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유럽, 러시아 등 수출도 활발하다”고 말했다. 소비자 가격은 45만원.

### 새집 증후군, 이전 걱정 마세요

중소 건축자재업체들이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 하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개발, 판매에 나서고 있다. 해성테크(대표이사 김호진 [www.haesungtech.co.kr](http://www.haesungtech.co.kr))는 피혁 폐기물을 가공해 만든 친환경 건축 내장용 시트를 개발, 최근 판매처를 모집하고 있다. 이 시트의 소재인 천연 가죽은 음이온을 발생시켜 건축용 내장재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해물질을 자연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김호진 해성테크 대표는 “기존의 PVC 시트지 나 벽지와는 달리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으며 화재시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 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서 “아울러 실내습도 조절기능이 있어 실내를 쾌적하게 유지해준다”고 설명했다. 해성테크는 이 제품의 우수성과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산업자원부 지정 신기술인증 (NEP)을 획득했다. 최근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두 집 건너 한집 꼴로 새집증후군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0~12월 신축공동주택의 입주자 52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입주자의 29.8%가 새집증후군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 친환경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에코웰3' 출시

음식물 처리기 전문기업 에코웰(대표 이윤원 [www.ecowell.net](http://www.ecowell.net))은 공기 순환 열풍 건조 방식의 2008년형 친환경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에코웰3(E3) 시리즈'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공기 순환 열풍 건조 방식에 의해 음식물을 완전히 건조시키고, 쓰레기 형태나 종류에 따라 최대 10분의1까지 부피를 줄여 6L까지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다. 또 신기술 탈취 시스템을 도입해 기본 탈취 후 제품 도어를 오픈했을 때 다시 한번 쓰레기의 악취를 강제 흡입해 냄새없이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고, 일반 세균과 대장균, 황색 포도당균이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위생적인 주방 환경을 돕는다. 가격 29만7000원.

### 디지털ITN 음이온 액자 출시

디지털ITN(대표 김동주)은 LED액자 형태의 공기정화기 'POP음이온 공기정화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공기청정기와는 달리 공기 중에 음이온을 직접 발생시키는 전자방사식 공기정화기로 필터 및 모터를 사용하지 않아 기본 전기료 외에 추가 유지보수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에 내장돼 있는 음이온 방사모듈이 약 150만~200만개의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 정화 역할을 하며 오존 발생이 거의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음이온이 방사돼 암모니아가스나 포름알데히드를 없애주고 담배 연기 같은 0.03 $\mu$ m 이하의 미세먼지는 음이온과 결합해 바닥으로 침전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공기정화기 1개는 33 $m^2$  정도를 정화할 수 있으며 한 달 전기사용료도 2000원 이하로 저렴하다. 또 이 제품은 액자 형태로 다양한 실사지를 삽입해 LED를 비춰주면 가정에서 장식용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으며 업체에서는 광고 이미지를 삽입해 홍보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실사지는 원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교체 가능하다. 330×175mm부터 1000×450mm짜리까지 네 가지 크기로 출시됐으며 가격은 19만8000~25만원이다. 김동주 대표는 “3년간 연구개발 끝에 공기청정기와는 또 다른 제품을 내놓게 됐다”며 “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양이온인데

공기정화기에서 방사하는 음이온이 전자파를 상쇄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는 "벽에 걸어서도 사용할 수 있고 고휘도 화이트 LED를 사용해 밤에도 탁월한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등 일석이조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ITN은 이외에도 차량용, 휴대용 공기정화기 등을 판매한다.

### 1개로 1개월 사용하는 원적외선 황토 숯

해도산업(대표 이찬우 www.haedo.co.kr)에서 개발하여 특허 및 상표 출원된 '원적외선 황토 숯'은 기존의 숯과는 확연히 다른 환경 친화적이며 편리성과 경쟁력을 두루 갖춘 제품으로 요식업소를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소자본 투자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 창업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해도산업의 황토숯은 삼겹살·생선구이 및 숯을 사용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복사열에 조리함으로써 육즙을 그대로 보관하여 육질을 부드럽게 해 고기 고유의 맛을 살려 준다. 황토 숯 1개로 1개월 사용이 가능하며, 기존의 중국산 숯이 월 124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해, 황토 숯은 월 9만원 밖에 들지 않아 기존 숯에 비해 원가 절감 효과도 대단히 높다. 투입 후 1개월 동안 사용자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연소되는 제품이 아니므로 연소 후 일어나는 재를 청소할 필요가 없으며 미세먼지 발생이 전혀 없다. 아울러 그 편리성은 황토 숯을 능가할 제품은 없다고 해도산업은 자신 있게 말한다. '원적외선 황토 숯'은 한국원적외선응용평가연구원 시험 결과 크롬이나 수은 및 카드뮴 등의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100% 국산 청정 황토에서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되어 인체에도 이롭다. 또 사용이 끝난 황토 숯은 흙으로 재사용할 수 있어 환경 친화적 제품이다. 현재 6곳의 총판이 개설되어 있으며, 황토 숯을 설치한 업소에서 편리성에 대한 감사 전화가 쇄도하고 있으며, 제품 보급을 위해 전국 대리점을 모집하고 있다.

### '덴티케어' 48개 칫솔 동시에 살균·건조

한보예스(대표 박영자 www.ihanbo.co.kr)는 다인용 칫솔소독기 '덴티케어(HB-S7000)'를 출시했다. 1991년 위생소독기 전문유통업체 한보상사로 시작한 한보예스가 위생기기의 장단점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 처음 내놓은 제품이다. 본 제품은 자외선(UV)램프로 오존발생선(184.9nm)부터 살균선(253.7nm)까지 조사하여 칫솔 속의 각종 세균을 99.9% 살균하는 기능을 한국생활환경시험 연구원의 테스트로 검증받았다. 이 제품은 섭씨 50도를 유지하는 발열세라믹히터 장착으로 칫솔을 건조하여 병원균 발생원인인 습도와 적정온도를 초기에 차단한다. 또 사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탈·부착 분리형 칫솔걸이를 채택했다. 은 나노, 바이오세라믹, 음이온을 첨가한 환경친화적 ABS 신소재로 만들어졌으며, 외부로는 칫솔모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수납 및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창과 LED램프 패널을 부착했다. 유치원, 공공기관, 산업체 등 시설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4인용, 36인용, 48인용 제품이 있다. 한보예스 박영자 대표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각종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신제품 '페브리즈 에어' 출시

상쾌함을 위한 온 가족 필수품, 페브리즈(www.febreze.co.kr)에서 공기탈취용 신제품 '페브리즈 에어'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하는 페브리즈 에어는 기존의 섬유탈취제 페브리즈에 이어 공기중의 냄새를 없애도록 새로 개발된 신제품 공기탈취제이다. 페브리즈 에어는 페브리즈만의 3단계 냄새제거 시스템을 통해, 향으로 냄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1분 안에 냄새를 신속하고 근원적으로 제거하면서 은은한 잔향까지 남겨주어 탈취와 방향의 2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는

기능을 가졌다. 생선을 구운 후나 갑자기 손님이 오실 때, 혹은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냄새는 빠르고 깨끗하게 없애주고 은은한 향기까지 남겨주는 페브리즈 에어는 비 내린 초원, 바람속의 꽃향기, 봄의 소생, 오렌지 빛 햇살 등 자연의 이미지를 담은 4가지 종류의 상쾌한 향이 있으며, 가격은 1개에 5,000원이다.

**(주)펠리테크 '원적외선 오렌지 쿡'**

(주)펠리테크(대표 김종현 www.rangemate.co.kr)의 원적외선 오렌지 쿡은 전자레인지의 전자기파에 의한 조리가 아니고 전자기파를 원적외선으로 변환시킨 열로서 조리를 하게 되므로 전자기파 조리의 단점인 음식의 건조문제, 조리물의 분자구조가 변형되는 문제, 미네랄, 무기물 등 영양성분의 파괴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했다. 앞으로 점진적 시장변화를 예고하면서도 이 회사의 조리 기구는 입소문만에 의해 급속 확산되는 추세다. 기존의 전자기파에 의한 조리는 효소 등 무기물이 파괴되고 분자구조가 변형되면서 음식물 세포가 파괴되나, 오렌지 쿡은 전혀 그렇지 않다. 더구나 전자레인지 조리기는 조리 후 손잡이가 뜨거워 주방용 장갑을 이용하지만 오렌지 쿡은 맨손으로도 이동 가능하다. 이 같은 획기적 생활용기를 개발한 이 회사의 김종현 대표는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냉동식품 제조를 약 20년간 운영한 이 분야의 외길을 걸었다. 그러면서 그는 전자레인지에서는 냉동식품을 가열하면 정상적인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는 문제와 고열을 낼 수 없어 음식을 구울 수 없는 단점이 있는 것을 절감했다. 결국 김 대표는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해도 겉이 마르지 않고 조리할 수 있는 조리기와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구울 수 있는 조리기를 일본, 미국, 유럽 등에서 찾아보았지만 아직 이러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아 미개척 분야임을 알고 직접 연구개발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상품화의 어려운 장벽을 극복하고 국내 시장 반응에 힘입어 일본 시장에도 전, 일급홈쇼핑의 꼴을 받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 회사는 세계최대인 미국 QVC홈쇼핑과 유럽 및 동남아 시장까지 런칭을 준비 중이어서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야심찬 행보에 나섰다. 김종현 대표는 "초기에 세계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 숭한 연구와 개발비 부족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평소 직원들에게 강조하듯이 '부족한 2%를 채우는 자만이 성공 한다' 는 철학으로 도약의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역경을 이긴 중소기업인으로서 "기술을 겸비한 수출 유망 기업에 정부의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요망 된다"고 말했다.

**구들박사, 찜질방 시스템 '비용 · 효과 만점'**

초절전형 난방 브랜드 구들박사(대표 최영희 www.healthen.co.kr)가 찜질방과 사무실등 대규모 난방을 위한 원적외선 천장형 방열기 '바이오선' 을 선보였다. 바이오선은 본격적인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소비율과 함께 난방설계에 있어 웰빙문화의 개념을 적극 도입한 제품이다. 기존의 선상발열방식이나 공기 히터방식은 높은 에너지 소비율과 유지관리부분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동시에 다량의 이산화탄소 발생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원적외선 방열기 바이오선은 전문가의 시공기술과 노하우를 제품에 적용해 특히 찜질방 시공에 있어 많은 장점을 지닌다. 찜질방의 경우 40~60℃의 온도를 적용시켜 쥐야 하는데 천장높이, 단열상태 등이 환경에 따라 설계내용이 틀리게 되지만 바닥원적외선과 천장방열기중 한가지만으로도 하여도 40도를 창출할 수 있다. 그 이상의 열은 바닥과 천장 동시 방사방법이 바람직하며 친환경 실내마감재(옥돌, 숯, 황토)속으로 원적외선이 투입되어 재 방사 될 때의

상생열이 인체에 도움이 된다. 구들박사 측은 “기존의 찜질방은 전기난방의 경우 1~2시간의 공회전과 시간 간 에너지 소비율 등으로 계산할 때 시간 당 바닥 850W(3.3㎡), 천장 난방을 850~1200W의 소비전력이 필요하지만, 구들박사의 찜질방 시공지침에 따르면 바닥은 500W(3.3㎡), 천장은 400W의 원적외선 동시 방사하는 상생열을 이용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 공간세라믹 ‘캐릭터 벽돌’ 선보여

공간세라믹(대표 조백일)은 “발바닥 캐릭터를 비롯해 행운을 가져다주는 네 잎 클로버, 몽블랑 제품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몽이, 아기자기한 오리 등의 동물모양을 형상화한 캐릭터까지 다양한 캐릭터의 디자인 벽돌을 개발, 판매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들 제품들은 초기제품들보다 자연스런 선과 개성을 더욱 잘 표현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공간세라믹 관계자는 “캐릭터벽돌은 기본제품 300개당 1개씩 배치돼 일종의 포인트 역할을 해 통행량이 많은 공간에서 자연스러운 동선을 이끌게 된다”면서 “아울러 단조로운 보행길에서 보행자가 숨어 있는 캐릭터를 찾는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간세라믹은 단순히 회색이나 시멘트 블록 일색이던 공간에 디자인 캐릭터벽돌을 도입해 환경디자인의 표정을 바꾸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름다운 도시 공간 만들기과 도자기벽돌의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PCB 내장 보온 의류 ‘프로재킷’ 개발

인쇄회로기판(PCB)을 옷 속에 내장해 보온을 유지시켜주는 의류가 개발됐다. 프로 에스엠텍(대표 김한수, www.prosmtek.com)은 PCB를 내장해 입기만 해도 열을 발생시켜 몸을 따뜻하게

담겨주는 기능성 발열의류인 ‘프로재킷’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프로재킷은 PCB를 내장해 휴대폰 배터리 기능의 리튬이온 폴리머 배터리로 발생하는 열을 신체에 효율적으로 전달해 보온효과를 낸 제품이다. 국내 최초로 대용량 폴리머 배터리를 적용, 가볍고 부피가 작아 휴대하기가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또 발열체가 카본인쇄방식으로 제작돼 인체에 유익한 성분인 음이온과 원적외선을 방출하고 혈액순환과 세포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기능성 제품이다. 고급원단을 사용해 부피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발열판은 구기거나 물에 담궈도 열판과 전선에 훼손이 전혀 없어 배터리만 따로 떼놓고 세탁기에 돌려도 된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한 번 충전으로 11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차량용 충전기로 충전할 수도 있으며 배터리 충전수명은 500회 이상이다. 김한수 사장은 “세계 최초로 면상발열체 특허출원과 실용신안 등록을 마쳤다”며 “낚시나 골프 등 레저는 물론이고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의류”라고 설명했다.

### 원적외선 유스파 비데 출시

한샘산업(대표 이윤철 www.hansaembs.co.kr)은 ‘원적외선 유스파 비데’ 신제품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인체에 유익한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기능을 내장해 비데를 사용할 때 생식기의 혈액 순환을 도와줘 치질과 여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며 항균수지 및 은나노 코팅을 했다. 가격은 대당 42만원.

### ‘친환경 학생가방’ 새 학기 선물

(주)화승 르까프(대표 나은택 www.lecaf.co.kr)에서 새 학기를 앞두고 친환경 아동 학생가방을 최근 출시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이 설레이는 신입생 아이들에게겐 예쁘고 세련된

가방은 자신감을 심어주며, 학교생활을 즐겁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아이템중 하나다. 이번에 출시된 르까프 아동용 학생가방은 세련된 유선형 패턴으로 디자인을 구성하여 움직임이 많은 아이들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컬러인데, 올 봄 신학기 가방은 밝은 색상의 핑크와 모던한 블랙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르까프 고유의 라텍스 멜빵을 사용하여 가볍고 탄력성이 아주 좋으며,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항균 작용을 하여 진드기 등의 서식을 방지해 아토피에도 효과적이다. 신체에 닿는 부분이 많은 등판에는 통기성이 우수한 에어 매쉬를 적용하여 땀의 배출을 원활히 해줌으로써, 상쾌하고 신바람 나는 등, 학교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름표는 천진난만한 패턴과 입체감을 살려 혹 의심 많은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가방과 세트 구성된 신발주머니도 눈에 띄는 원색을 사용하여 구별하기 쉬우며, 갑작스러운 비에 젖지 않도록 우산 보관함을 적용하여 여러 가지 용도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 균열독배기, 열에도 변형 없어 오염 막아**

피닉스세라믹스(대표 박창립)는 1200℃가 넘는 온도에서 소성된 특수자기로 만든 내열 독배기(모델명 P81A13)를 내놨다. 일반적인 도자기 독배기는 조리할때 가해지는 열에 의해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균열이 생긴다. 이로 인해 독배기는 자연스레 세척제나 오수 등을 흡수하게 된다. 피닉스세라믹스는 균열을 차단하면 오염물 흡수도 없다는 점에 착안한 무 균열 독배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엽장석을 주재료로 만들어 열을 가해도 팽창하지 않도록 내부흡수율, 열팽창률을 '0'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피닉스세라믹스는 음식물

찌꺼기가 스며드는 것을 감추기 위해 검정 계통 색으로 만들어지던 독배기를 흰색 독배기로 탄생시켰다. 5년여 연구 끝에 개발한 이 제품은 독배기가 갖고 있는 원적외선 방출 효과는 그대로 유지한 것이 또한 특징이다. 또 다른 내열 도자기보다는 훨씬 가볍게 제작해 한 손으로도 쉽게 다룰 수 있다. 피닉스세라믹스는 이 제품을 일본 쇼핑 대행업체 선 쇼지상사를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영국 로열 워스터사 와도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원적외선 닥터싱크 '원적외선 싱크대' 출시**

원 적 외 선 닥 터 싱 크 (대 표 안 두 만 , [www.onesink.co.kr](http://www.onesink.co.kr))는 아궁이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에 착안해 주방기구로만 생각하던 싱크대에 원적외선을 접목시켜 건강 싱크대로 재탄생한 이 제품은 주부들이 매일 사용하는 싱크대에 원적외선을 설치해 일부러 시간을 내지 않아도 싱크대 앞에 설 때마다 자동으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을 쬐므로 자궁암 예방 및 질 소독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한 건강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동센서를 이용해 ON/OFF가 자유로우며 한번 설치로 평생 건강을 챙길수 있는 생활속 웰빙 제품이다. 싱크대 설거지통 하부 위치 문짝 안에 원적외선 램프를 설치해 설거지 하는 동안 자궁에 원적외선을 쬐여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과잉 염분을 감소시켜 준다.

어머니가 힘든 일을 하다 보니 몸이 불편해 자주 원적외선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일부러 시간을 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고안한 제품이다. 주부들이 자주 가는 싱크대에 부착하면 요리 및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 원적외선을 자연스럽게 쬐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